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  
刊

# 統一經濟

1997. 8 통권 제32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 統一經濟

8  
1997  
제32호

**편집자의 글**  
성공적인 4者회담을 기대하며.....2

**초 점**  
국가 안보와 남북 경협 • 정순원.....4

**특 집**  
전문가 초청 토론회: 김일성 사후 3 년과 북한의 정치·경제 전망 .....12

**기획연구**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상관성 분석 • 김성한 .....65  
한·미·북 삼각 게임의 딜레마?

**논 단**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 변화와 남북 관계 • 고재남 .....86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유도 방안 • 오삼교 .....98

**통일다리**  
사람 이름 붙이기 • 정창현.....112

**북한경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Ⅲ)-'통신' • 황동연 .....117

**통일연구**  
독일의 정당 통합과 그 시사점 • 고상두 .....135

**해외 기고**  
한국은 독일식 통일을 해낼 여력이 있는가? • 마크 피아졸로 .....144

**서 평**  
북한의 모습을 정확히 그려낸 북한 에세이 • 이미숙 .....154  
시계무라 도시미즈(1997),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식공작소

통 권 제32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7년 8월 11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웅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이두환 김철근  
홍순직 오삼교  
이병두 이태섭  
편집주간 심재철 황동연  
편집교열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37-4005  
F A X (02)730-1771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성공적인 4者회담을 기대하며

4 者예비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은 두 가지 의제를 상정해 놓고 있다. 하나는 평화협정의 체결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이다. 한미 정부는 이를 북한이 원하는 식량 지원과 경협, 그리고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 완화와 연계하여 일괄 타결한다는 것이다. 즉, 1단계에서 북한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은 식량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예비회담에서 논의될 본 회담의 의제는 한미 양국이 원하는 '평화'와 북한이 원하는 '경협'이 모두 포함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경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원의 정순원 선임연구위원은 '초점'에서 남북 경협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남북 경협 관련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실용적으로 철폐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특집'은 지난 7월 23일 본 연구원에서 열렸던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발표된 "김일성 사후 3년과 북한의 정치·경제 전망"을 수록하였다. 서울대 장달중 교수의 사회로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였는데, 김일성 사후 지난 3년간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을 분석한 후,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토론에서 고일동·장명순 박사는 북한의 정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중점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권오홍 대표이사, 유영구 기자는 북한의 현실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 이채롭다.

'기획연구'에서는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의 "북미 관계의 상관성 분석: 한·미·북 삼각 게임의 딜레마?"를 실었다. 이 글은 냉전 종식 이후 북미 관계의 현황 분석과 이에 따른 한·미·북 삼각 게임의 의미와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3者 모두 어느 정도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넌 제로 썸' 게임을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논단'에서 먼저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 변화와 남북 관계"에서는 러시아의 대북 안보 정책과 이것이 갖는 남북 관계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

의 對한반도 정책은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와 민주화 등을 고려할 때, '남한 경사적' 정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원의 오삼교 연구위원은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유도 방안"에서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위한 탈출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경 분리를 통한 경험 증진으로 북한의 개방 정책의 성공을 지원하고 관계 개선 이후에는 국제 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일보 정창현 기자는 북한에서 정권의 정통성과 주민들의 충성심 고취를 위해 단체, 지명, 건물 등에 대한 다양한 '사람 이름 붙이기'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에서 본 연구원의 황동연 주임연구원은 '통신' 분야를 정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북한 통신의 중요성을 경제 협력의 전제 조건 및 경제 통합에 대비한 북한 통신 구조의 고도화로 이해하면서, 현 상황 하에서 북한내 통신 시설 및 서비스 시장의 선점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통일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고상두 객원연구원의 "독일의 정당 통합과 그 시사점"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 脫사회주의 과정에서 구 동독 지역에서 다당제로의 정치 발전 과정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 기반 정당에서 탈피하여 이념적·정책적 기반을 갖춘 정당의 출현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기고'에서는 독일 Dresdner은행 경제분석관인 마크 피아졸로(Marc Piazzolo)氏가 "한국은 독일식 통일을 해낼 여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구 동서독 및 남북한 경제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비교·설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독일식 통일은 남한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평'에서는 일본의 중견 언론인 시게무라 도시미즈(重村智計)의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식공작소)를 소개하고 있다. 북한을 맹목적으로 미화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가급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정리한 점이 돋보이는 책으로, 그간 '냉전 논리'의 틀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집필된 북한 관련 서적을 찾고 있는 독자에게는 아주 유용한 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달에는 4者예비회담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회담에서 본회담의 의제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예비회담에서 쌍방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제가 도출되기를 국민 모두는 바라고 있다.

1997년 8월

편 집 자